

석사학위논문

청소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학교음악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장 흥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 혜 숙

2002년 8월

청소년기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학교음악교육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장 홍 용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5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강혜숙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음악교육의 중요성	5
1.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	5
1)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	5
2)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10
2. 음악교육의 이론적 배경	16
1) 철학적 관점	16
2) 미학적 관점	20
3. 청소년기의 특징	26
1) 신체적 특징	26
2) 정서적 특징	28
3)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으로 본 음악적 성장	29
3. 음악 교육의 당위성	33
1) 음악 교육의 목적	33
2) 음악교육의 당위성	34
3) 음악치료로 본 음악교육	37
5. 우리나라의 학교 음악교육	39
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음악교육	39
2)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III. 결 론	50
참고 문헌	53
ABSTRACT	55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음악은 음을 소재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예술이란 인간만이 갖는 미적 창조의 행위로써, 인간이 좀더 인간다워지고 고상한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돕는 것으로, 문자예술·전시예술·공연예술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연극·영화·무용 등 공연예술 중에서도 소리를 통하여 인간의 감성에 직접 작용하는 음악이야말로 인간 정서 순화에 가장 으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교육은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고귀한 행위로써, 자자손손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는 고귀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인간정신을 순화하고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인간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

“음악은 영혼을 감동시키고 리듬과 멜로디는 분노와 온화, 용기와 절제, 이것들과 상반되는 모든 성질의 모방을 공급한다. 따라서 그것들을 들으면 영혼의 변화가 오게된다. 리듬은 저급한 동작과 고상한 동작을 가져온다. 음악에는 성격을 형성하는 힘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젊은이의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인 ‘정치학’에서 언급했

1) 류혜련 “음악교육이 전인적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P1

으며,²⁾ 플라톤은 “음악교육은 미에 대한 인식 및 그 추구능력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진·선·미 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중해야 하며, 아름답고 바른 음악은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좋지 못한 음악은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³⁾ 이렇듯, 음악은 인간의 정서발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인간의 문화생활을 높이고 진·선·미의 경지를 맞출 수 있는 인격을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된다.

이와 같은 음악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목적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여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고,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있다.

또한 현대의 학교음악 교육은 음악의 포괄적인 체험을 통해 개인의 심미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통하여 자기를 구현하며, 나아가서는 남들과 더불어 민족음악 문화와 세계음악 문화를 공유하고 창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

음악 문화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가치체계는 일반학교의 음악교육 범위와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이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악예술의 가치에 눈뜨게 하고, 높은 수준의 음악문화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때 그들은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소망스러운 민족음악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

이제, 교육은 풍부한 인간성, 조화된 인격을 배양하는 인간교육 즉 전인교육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2) 신득렬, “음악교육 5월호” 서울 세광문화사 1988 P34

3) 정세문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창지사, 1986 P15

4)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머리말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장은 단순한 지식전달, 혹은 실질적인 기술만을 강조할 뿐 내면적인 정신적 생활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교육이나 학생들의 창의적인 음악활동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로의 진학만을 중시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음악 수업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이렇듯, 음악·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입시문화에 의해 음악교육이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며,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고,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음악교육을 통한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된 논문 및 음악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악교육의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된 논문 및 음악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세

5) 공소현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악교육의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로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에서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화기 이전부터 근대까지의 음악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음악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 철학적·미학적 관점에서의 음악교육의 위치와 그 기능을 살펴본 다음,

셋째,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음악치료학적 측면에서 본 음악교육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사회교육과 학교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중, 학교 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보려 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음악을 단지 결과론적으로만 본 미적 가치로서 중요성보다는 이론적 배경에 바탕을 둔 음악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학문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보다 합목적적 이론에 근거한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음악교육의 중요성

1.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

1)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

(1) 독일의 음악교육

Bach를 비롯한 수많은 악성들을 배출한 독일은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8-19세기에 걸친 신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성의 개선을 지향하는 교육법이 시행되었는데, 루소와 페스탈로찌의 교육사상을 이어받아 이것을 음악교육의 실제면에 적용시킨 M. T. Pfeiffer의 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리드리히 프뢰벨은 유치원을 창설하여, 교육은 나면서부터 단계적으로 행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도 노래와 유희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이것은 모든 어린이들을 전문적인 예술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타고난 자연성의 완전한 발전을 꾀하여 참된 예술을 이해·감상 시켜 정서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난 Thomascik는 완전한 교육목적의 달성은 인간의 향상에 기대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에는 음악이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19세기 말 이래 전반적으로 침체 속에 빠져 있던 독일의 음악 교육은 나치스의 파멸이후 새롭게 일기 시작한 예술교육 진흥의 기운과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진보적인 음악교육 상황에 자극을 받아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음악 교육자들은, 음악이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간 교육이 중

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후 K. Eitz를 비롯한 음악 교육자들의 연구와 실천, E. J. Dalcroze의 접근 방법의 도입 등을 계기로 독일의 음악 교육은 급속히 발달하였으며, 기악지도, 민요 및 현대음악의 교재화를 비롯하여 전문 음악가 양성과 일반 학교의 음악교육, 일반 대중 음악교육 등을 위한 개별 체제의 확립을 통해 음악교육의 전반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20세기 중엽에 Carl-Orff가 창조적인 음악 교육체제를 고안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독일의 음악교육계는 전 세계에 혁신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⁶⁾

(2) 영국의 음악교육

영국에서는 16-17세기경부터 시인 Milton의 ‘교육론’과 그 외 여러 교육학자들의 주장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초·중등 교육 교과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도 음악을 즐겨 연주했는데 음악을 통한 청소년 교육이야말로 가장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식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한다며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세기에는 음악이 인간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여 수도원에 부속된 모든 학교에서는 찬송가와 노래가 성행했고 인간교육에 있어서의 예술교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Uppingham School의 교장 Thing이 그 학교의 교과과정에 음악과를 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⁷⁾

18세기 후반이래 J. Hullar 등의 활약에 힘입어 꾸준히 음악교육을 보급, 발전시켜온 영국의 음악교육자들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독보 중심의 음악 지도에 감상 및 기악을 첨가함으로써 음악교육의 폭을 넓혀갔고, F. Hayward, S. Macpharson 등의 활동으로 음악감상 지도방법의 연구 및 실

6)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15-16

7) 유덕희 음악교육학개론 P43-44

천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20세기 초의 중등학교의 성장과 1944년의 새 교육법의 시행을 계기로 기악교육이 특히 활발해졌고, 예술과 청소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오늘날에는 가창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통한 포괄적인 음악성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⁸⁾

(3) 프랑스의 음악교육

프랑스는 1791년이래 학교교육을 크게 확충하는 한편, 교육제도를 개편하였으나, 음악을 학교교과에 포함시킨 것은 1833년이었으며, 그 후에도 20세기 초까지는 주로 뛰어난 음악인재의 육성에 주력하였다.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이 진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범학교의 음악교육이 충실해지고, 음악교재가 출판되고,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프랑스의 학교 음악교육은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 1947년의 Langerin-Wallon 교육안을 비롯한 몇 차례의 교육개혁의 시도와 학교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게 되었고, 교사들은 특히 독보력을 바탕으로 한 음악성 향상에 주력하게 되었다.⁹⁾

(4) 미국의 음악교육

미국의 음악교육은, 영국 식민지착화에 있을 무렵의 것은 거의 무시되었고 독립정착 후에도 학교의 교육은 읽기, 쓰기, 셈하기의 세 과목만 주가 되고 음악교육에는 약간의 가창만이 있었는데, L. Mason의 출현으로 음악교육은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8)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15

9) 이흥수, 전계서, P16-17

1720년 최초로 Singing School이 설립되었고 “모든 어린이들은 모두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반드시 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초로 실현되었다.

미국의 음악교육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J. Dewey의 출현에서부터라고 하겠다. 1919년 이후 모든 교육면에 있어서의 개선과 함께 음악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는데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따르는 생활중심의 교육이념에서 오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¹⁰⁾

미국의 음악교육은 1885년까지의 ‘음악 교육의 개척기’를 거치면서 학교 제도의 조직화, 보통교육의 일반화, 전문 음악교사의 증가 등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29년경의 경제 대공황 이후에는 J. Dewey의 경험주의 교육이론의 영향으로 학생 중심, 경험중심의 음악지도가 주된 경향이 되었고, 종래의 가창활동 위주의 음악 수업은 기악, 창작, 감상활동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Dalcroze, orff, Kodaly, 스투키 등의 음악교육 이념과 방법이 도입되면서 학교의 음악교육은 점점 활발하여졌다.

1957년의 Sputnik 사건은 미국의 음악교육이 새로운 교육이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음악교육자들은 J. Bruner에 의해 제시된 학문주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전국 음악교육자 협의회가 주도한 여러 심포지엄, 세미나, 프로젝트들을 통해 ‘포괄적인 음악교육’이라는 하나의 총체인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구조적인 학습과 창의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음악교육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¹¹⁾

10) 供田武嘉津, 音樂教育の潮流, P 101

11)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 출판사 1990 P17-18

(5) 일본의 음악교육

일본은 동양의 어느 나라보다 일찍 서양음악을 받아 들여 잘 소화시킨 나라로서 각급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구미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 교육과정의 변천은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음악의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필요에 따르도록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가치 있는 경험을 조직한 것이라는 개념에 의해 모든 분야의 음악경험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까지도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음악의 교육과정은 풍부한 음악경험을 부여하여 바람직한 태도, 기능, 감상, 이해 등을 습득시켜야 한다. 모든 학생이 음악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음악 학습지도가 전문적 기술의 지도에 그치게 되면 특수한 경우, 어느 정도의 음악표현이 가능하더라도, 그 기술이 실제의 생활 중에 살아 움직이지 못하므로 인간의 유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음악의 학습 지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음악에 대한 바른 이해, 감상능력이 몸에 배고, 음악의 표현기술이 수반되어 음악을 통한 바람직한 습관, 태도가 확립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 교육과정은 학생의 흥미에 맞추어 가치 있는 음악경험을 쌓아나가야만 한다.

③ 음악의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차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음악에 대한 이해, 기능, 감상, 태도는 학생에 차이가 있어, 그에 대한 흥미도 각양 각색이다. 금후의 음악 교육과정은 개인의 필요·흥미·능력을 진단하여 개 개인에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맞는 학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차에 대한 준비도 달리하여야 한다.

④ 음악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창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금후의 음악 학습지도법은 일정형태와 기계적 기술을 학생에게 강제적으로 교육시킨다든지 교사의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생의 필요 및 흥미를 토

대로 자발적 학습활동을 이끌어내 창조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음악의 교육과정은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음악 교육과정은 경험을 토대로 이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관된 평가의 체계를 기초로 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음악교육은 교육을 통해 인격을 완성시켜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근로와 책임을 중히 여기는 국민을 기르는 것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의 현행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의 기본방침은 심성교육에의 충실, 기초·기본의 중시와 개성교육 충실, 자기 교육력의 육성 그리고 문화와 전통의 존중과 국제 이해의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¹²⁾

2) 우리나라의 음악교육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에 대하여, 개화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음악교육의 변천사를 되짚어 보고, 음악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서양 문화가 유입된 1884년부터 1910년까지를 흔히 개화기라 부른다. 이 기간은 교육의 전반적 측면에서 볼 때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근대 학교가 설립된 시기이며,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음악이 학교 교과목의 하나로 포함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학교 음악교육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즉, 1885년과 1886년에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미국 선교사 H. G. Appenzeller와 H. G. Underwood에 의하여 각각 설립되고, 1887년부터는 한국 성경 번역부가 창설되어 선교사들에 의해 찬송가가 지도되기 시

12) (일) 野村幸治, 中山裕一郎, 音樂教育を 讀む, 音樂之友社, 1995 P65-68

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¹³⁾

(1) 개화기 이전

기록을 통하여 한민족의 생활 속에 음악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시기는 삼국시대부터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한국 문헌들과, 삼국지를 비롯한 중국 문헌들이나, 일본서기, 일본후기 등의 일본 문헌들을 통하여 연구된 바에 따르면, 삼국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 금(琴)·가(歌)·무(舞) 일체 형태의 음악이 존재하였고, 음악 행정 및 교육을 담당하는 장악기관도 설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라는 7세기 중엽부터 음성서(音聲署)를 설립하고 여러 악관직(樂官職)을 두어 음악행정과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이 시대에 이미 악공(樂工)들 사이에 악곡 및 악기의 연주 기법이 전수되고 교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의 음악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중국의 음악(당악·唐樂)도 수입하였으며, 한민족 고유의 민속 음악과 중국 음악의 접목을 통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음악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조정에 전악서(典樂署), 대악서(大樂署), 악학(樂學), 관현방(管絃房) 등의 장악기관(掌樂機關)을 두어 음악에만 전념하는 악인(樂人)들이 있었으며, 그들에 의하여 음악의 전수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조정의 행사를 위한 음악이 관리되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예악(禮樂)이 강조되고 궁중의식 중심의 음악이 중시되면서 장악기관에 의해 수백 명의 악공과 악생(樂生)들이 양성되고, 궁중에서의 음악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궁중의 음악인들에 의

1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2

해 음악이론이 연구되고 악기가 제조되었으며, 조선조 제9대 성종24년에는 악학궤범(樂學軌範)이 간행됨으로써 한민족의 전통음악이 집대성되었으니, 이는 한국 음악사에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의 혼란과 재정궁핍으로 인하여 궁중의 음악예식이 축소되고 장악원(掌樂院)의 악공이 감원되면서 궁중음악은 점차 위축되었으며, 왕실과 양반층의 음악 수용자도 감소되어 갔다. 한편, 학식과 교양을 갖춘 중인 출신의 가객(歌客)과 풍류객(風流客)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르로서의 정악 출현, 성악곡의 기악화, 번음축절(繁陰促節) 현상, 악곡의 고음화(高音化)현상, 조현법(調絃法) 및 안현법(雁鉉法)의 조정 등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변화들이다.

조선시대의 음악의 전수 및 교육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궁중음악의 전수 또는 교육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 전문 예능인들과 그 밖의 애호가들에 의한 민속음악의 개별적 전수 형태이다. 이 시대에는 또한,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수록된 정간보(井間譜)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처음 소개된 합자보(合字譜)가 민간에도 전해졌는데, 이는 향악(鄉樂)이 점차 일반대중 속에 뿌리내리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¹⁴⁾

(2) 개화기 이후

학교 음악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개화기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다.

1887년에 선교사들이 배재학당 및 이화학당에서 찬송가를 지도하면서 시작된 음악 교육은 그 후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됨으로써 점차 확장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소양을 갖춘 음악교사들에 의해 찬송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지도되었다. 그러나, 음악 지도의 내용은 이른바 ‘신악(新樂)’

14) 이홍수, 전게서, P18-20

이었으며, 한국의 구가(舊歌)와 구악(舊樂)은 외면되고 있었다.

1906년에는 보통학교와 사범학교에서도 창가(唱歌)과목이 편성되고, 1909년에는 음악이 실제로 가르쳐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사가 부족하고 교과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통학교와 사범학교의 창가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학생들은 때때로 학도가, 권학가, 공덕가 등 주로 애국적, 권면적 성격의 노래들을 부르는 정도였다.¹⁵⁾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해방 이후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독교계통 학교의 역할이 크다.

그 당시 음악수업은 찬송가를 영어로 부르거나 아니면 한 두 절씩 우리말로 고쳐 부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근대 예술가곡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의 음악문화를 지배한 창가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일이다.

1920년대는 우리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된 3·1운동은 그 이후의 음악을 탄압한 계몽음악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상심을 달래기 위한 위안음악 내지는 저항음악으로 변하게 하였으며 종래의 창가도 예술가곡, 동요, 유행가로 발전 변화하여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민족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부문으로 지속되었다.¹⁶⁾

1910년의 한일 합방에서 1945년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36년 동안은, 청년학도들이 부르던 애국적인 노래와 일반인들에 의해 전승되어오던 한국의 구가악(舊歌樂)을 모두 빼앗겼던 참담한 시대였다. 일본교육 당국은 1910년에 국내 최초의 음악교과서 “보통 창가집”을 펴냄으로써 민족의식을 소멸시키기 시작하였다. “보통 창가집”에 수록된 일본의 노래와 서양의 가곡 및 민요들을 가르침으로써 청년학도들 사이에 조성되어 있던 애국적인 음악풍토를 흐트러뜨리려 했던 것이다.¹⁷⁾

15) 이흥수, 전개서, P23

16) 이용일, “음악교육학 개론” 서울, 현대악보 출판사, 1982 P266,267

17)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23,24

(3) 근대

우리나라는 1955년 최초로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공포함으로써 교육내용과 지도계획이 성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제사회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되고, 음악교육 또한 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내용 및 지도계획이 변천하고 있다.

제 1차 교육 과정 (1955-1963)

제 1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념상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의 체험을 통해 정서와 인격을 갖추어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과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제 2차 교육 과정 (1963-1973)

제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상 생활중심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규정된다. 음악교과에서는 제 1차 교육과정의 ‘음악의 생활화’와 ‘기초이론’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그것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음악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제 3차 교육 과정 (1973-1981)

제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 일컬어진다. 제 3차 교육과정에서 ‘음악성’, ‘창조성’, ‘음악 요소’ 등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제 4차 교육 과정 (1981-1987)

제 4차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수요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간주된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세계의 음악교육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개념적 접근방법과 학생중심의 경험학습, 창의적 음악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음악 자체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학습의 핵심(核心)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설정의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제 5차 교육 과정 (1987-1992)

제 5차 교육과정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 민주화의 정착화, 정보화시대의 도래, 국제 경쟁 및 교류의 증대 등 교육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한 교육 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적,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 4차와 비교할 때, 목표와 내용 구성상의 변화일 뿐,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 6차 교육 과정 (1992-1999)

제 6차 교육과정의 중심철학은 학문중심의 심화발전¹⁸⁾에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지도내용을 ‘이해’, ‘표현’ ‘감상’으로 구분하고, ‘이해’는 음악의 구조적 개념과 음악 생성 원리의 이해를 뜻하며, ‘표현’활동과 ‘감상’을 통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표현’의 본질이 예술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¹⁸⁾

제 7차 교육과정 (1999-)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 세계적 추세, 교육적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여 새 시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교육의 목

18) 차윤선 “한·일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1999 P17-19

적' '음악과 교육의 특성' '고등학교에서의 음악과의 지도중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 음악교육의 이론적 배경

1) 철학적 관점

(1) 자연주의(Naturalism)와 교육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자연이 모든 지식의 본체일 뿐만 아니라 그 원천이며, 선(善)도 자연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가장 자연적인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연적인 가치를 깨닫는 길은 되도록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인식한다.¹⁹⁾

자연주의적인 관점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교육지침을 세울 수 있다.

- 첫째,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에 일치하는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 둘째, 교육내용은 즐거운 활동,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 셋째, 지적·정신적 발달에 못지 않게 신체적 성장도 강조되어야 한다.
- 넷째,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부분적 사실들로부터 지식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귀납적 접근방법으로 학습해야 한다.
- 다섯째, 잘못을 저지르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벌이 내려져야 한다.

19)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P29-30

자연주의자들은 교사가 학습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학습방법의 선정도 주로 학생의 책임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교사와 학생이 비교적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학습하여야 하며, 교사는 지식의 원천이나 보급자가 아니라 다만 협조자이며 조언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2) 관념주의(Idealism)와 교육

관념론에 있어서는 인간정신을 우주정신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은 인간의 본성을 구현하며 신격(神格)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관념론자는 주로 지적발달과 인격완성을 교육의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정신적 생활을 충실히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직업적·실제적 도야(陶冶)보다는 일반교양을 중시하는 교육이 강조된다.

관념론의 교육관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은 자연적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고 정신적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사회의 기능이다. 따라서 문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만 골라 교육시켜야 한다. 가장 아름다운 환경에서 어린이를 길러야 한다.
- 학생 각 개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개성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은 하나의 개성적 존재로서, 그리고 정신적 존재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 교육의 목표는 개성을 완성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사회의 혁신을 이룩하는 데 두어야 한다. 관념론은 교육을 정신적인 자아를 완전히 실현하는 데 두며 동시에 이런 개성은 하나의 정신적인 유대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

20) 이홍수, 전제서, P38-39

- 교육의 과정은 이상(理想)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학생중심, 교과중심, 사회중심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려면 교사는 학생의 교육적 환경을 창조해주고, 고무해 주며,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해주고, 학생자신이 자아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책과 교과 이상의 체험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학생에게 의문이 생겨 스스로 그것을 풀려는 생각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실재주의(Realism)와 교육

실재주의에 있어서는 인식주관에 관계없이 외적 세계가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주장이 근본적인 특징이다. 인식작용에 대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외적·객관적 세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과 그 성과로서의 과학적 지식을 중시한다.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중점을 두는 입장은 필연적으로 말보다는 사실을 중히 여기는 교육설(教育說)을 낳게 한다.

실재주의의 교육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합리적 실재주의자들은 인간을 정신적 존재라고 보고 합리성이 인간의 최고의 속성이라고 본다.

-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카톨릭 실재주의자들은 “내세를 위한 준비”라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알맞은 인간”을 육성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러셀은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지성의 발달에 있다고 하였고, 화이트 헤드는 유용성을, 브로우디는 훌륭한 삶을 교육의 목표라고 하였다.

-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중요시하고, 교사의 주도권을 존중하되 아동의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실재주의자들은 교수방법보다 교육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교육 과정은 알 가치가 있는 실재(reality)로부터 짜여져야 하며, 수학·자연과학·사회과학·인간학 등을 중요시하며, 중등학교에서는 직업교과를 포함하지 않으며 과목간의 통합을 중요시한다. 중세의 실재주의자는 예술을 중시하지 않았으나 근세(특히 브로우디)에는 예술사를 중요시했다.

(4) 실용주의(Pragmatism)와 교육

실용주의는 교육에 있어서 진보주의 교육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진보주의 교육의 철학적 기저가 된 실용주의의 교육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용주의에 있어서는 변화를 실재의 본질로 보고 인간은 사회적·생물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자연적 유기체이며, 인간의 본성은 유동적이고 가소적(可塑的)이라는 인간관을 전제하고 있다.

- 교육의 목적이나 수단은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교육의 수단은 목적과 결합되고 목적은 수단에서 나오므로 교육 자체는 수단이며 목적이다. 즉, 교육이 인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단이다. 따라서 교육목적은 고정되어서는 안되며 밖으로부터 주어져서도 안 된다.

- 실용주의에 있어서 실재는 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은 그에게 영향을 주는 바의 세계를 학습하여야 한다. 학생이 그가 생활하는 환경을 떠나서 생각될 수 없는 것처럼 학교는 생활 자체와 분리될 수 없다.

- 학습은 행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바로 배운다는 것은 문자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함에 의하여 배운다는 것이다.

- 교육의 과정은 경험으로부터 유리된 단편적이고 구획된 전통적 교육과

정을 배격한다. 즉, 교육의 과정은 “끊임없는 경험의 재구성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²¹⁾

2) 미학적 관점

(1) 관련주의 (Referentialism)와 음악교육

관련주의는 예술작품의 가치를 작품 밖의 사물과의 관련성에 두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주의 미학자들은 예술작품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작품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상, 감정, 현상들을 생각하게 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한다고 믿는다.

관련주의 미학자들은 음악은 본질적으로 언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가 말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듯이 음악적 언어도 음악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때, 음악적 언어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징 체계를 뜻한다. 관련주의자들에 따르면, 언어의 기본 요소는 어휘이며, 어휘는 상징의 집합체로서 합의된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다 복잡한 관련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형태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도 음향으로 약속된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번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음악 예술의 실용적 가치는 음악 작품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실용적 목적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관련주의 미학자들은 음악 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음악 외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받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 활동에는 관련주의적 가설이 많이 작용하

21) 김경식 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과학사, 1996 P435-446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음악 작품을 음악 외적 사물이나 감정에 관련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가곡은 가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악과 결합된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표제적 기악 작품 역시 작곡자가 붙인 음악 외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예술 작품이 주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련주의자들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예술과 감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예술외적 목적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주의자들은 표제적 작품이 아닌 악곡에서도 음악 외적 대상과의 관련성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이 음악 교육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느끼게 한다.²²⁾

(2) 형식주의 (Formalism)와 음악교육

형식주의는 관련주의와는 달리 예술 작품의 형식적 특성에 관심을 집중한다.

형식주의 미학자들은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형식'에 예술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들은 음악 작품은 그 형식의 지적 관조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음악 작품의 형식적 구조가 뛰어나게 구축되어 있어서 작곡자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 작품은 훌륭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작품의 음악 외적 대상과의 관련성을 부정한다. 예술 작품은 그 작품 구조 안에서 예술적 현상들 간의 의미 있는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그리하여 작품 자체의 독특한 의미를 갖는 독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작품의 범주를 벗어난 그 어떤 외적 의미와도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다.

음악을 체험함에 있어서 감성과 지성의 작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그런데 형식주의자들은 음

22) 이홍수, 전계서, P50-52

악 작품이 일상의 사건이나 대상, 감정 등에서 멀어질수록 작품의 구조는 더욱 순수한 형식의 영역으로 정화되며, 지성에 대한 호소력은 더욱 고조된다고 본다. 더욱이 음 현상적 자료의 배열이 정교하면 할수록 형식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감정은 배제되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작품은 더 훌륭해지고, 그것의 경험은 보다 심미적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관점이 학교에서의 음악 지도에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많이 발견된다. 학교 수업에서 음악작품의 형식적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구조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또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형식주의자들은 음악 작품과 작품외적 대상과의 관련성, 그리고 형식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심미적 속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단순히 작품의 형식을 분석하는 일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그들은 음악의 체험은 그것이 순수한 지적 작용일 때 의미 있는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3) 표현주의 (Expressionism)와 음악교육

표현주의는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음향의 상징적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표현주의 미학자들은, 비록 불완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음악이, 존재와 느낌의 상태를 의미화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음악이 인간의 삶의 경험들과 꼭 같거나 유사한 빠름과 느림, 셈과 여림, 긴장과 이완 등의 역동적 상태와 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나 삶의 느낌을 의미화 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표현주의는 예술의 가치를 삶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발견하려 하는데, 이는 심미적 경험에 대한 J. Dewey의 실용주의적 견해와도 밀접하게 관련

23) 이홍수, 전계서, P53-55

된다. Dewey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항상 흐름결을 가지고 이어진다는 말이다.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이 그러한 삶과 관련된 인간의 느낌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매우 진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음악은 경험 속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떤 일반화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믿는다.

표현주의 이론은 음악학자들과 예술가들에 의해 널리 옹호되고 있으며, 음악교사들도 수업에서 표현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표현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Langer가 주장하는 음악의 상징성을 존중하며, 음악작품의 미적 체험의 목적이 예술을 통해 삶의 경험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관조하도록 권하고, 학교활동에서 음악이 지니는 심성의 정화 및 기분 전환의 기능을 강조한다. 그들은 음악을 언어로 설명하는 일을 삼가하며, 학생들에게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형식을 개념화하려 하지 않는 동시에, 음악의 총체적 표현력으로서의 표현형태에 유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인간경험의 형태를 체험하게 한다.

(4) 절대표현주의 (Absolute Expressionism)와 음악교육

절대표현주의는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작품의 형식미적 질에 있다는 형식주의의 주장을 수용하는 동시에, 예술작품의 심미적 요소들은 모든 인간 경험에 내재하는 질적 속성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표현주의적 견해도 지지한다.

Reimer는 그의 저서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에서, 예술작품의 미적 특성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보고, 예술을 “인간이 실체를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인간은 예술작품의 미적 질을 통하여 감정의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이

곧 감정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는 길이며, 예술이야말로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경험을 세련되게 하고 깊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라고 주장한다.

절대표현주의는 예술작품의 미적인 질은 표현형식에 담겨진다고 생각한다. 표현 형식은 예술상징으로, 관습적 상징과는 대칭 되는 개념이며, 예술작품의 전체적 표현성을 뜻한다. Reimer는 표현형식을 “음악작품의 율동, 가락, 화음, 음색, 성부조직, 형식 및 음악적 정서에 공헌하는 그 밖의 모든 요소들의 총체적 표현성”이라고 정의하고, 바로 그것이 예술적 의미를 지니며, 그 예술적 의미는 외적사물과의 관련 없이 독자적인 미적 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술작품에서 지각되는 그 독자적인 의미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인간의 삶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절대표현주의자들은 학교에서의 예술작품의 체험은 관습적 상징체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표현형식을 통해서 통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그 표현형식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지각하도록 이끌면서 공감하고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음악작품의 표현형식을 심미적으로 다룰 때, 비로소 음악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eimer는 “음악 교육은 심미적 교육이어야 하며, 그것은 ‘느낌의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Reimer의 견해에 대해서 음악이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느낌을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느낌이 외적조건에 의해 조절되거나 훈련될 수 있는 것인가, 또 느끼는 방법이나 느껴야 할 대상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자들도 있으나, 훨씬 더 많은 음악 교육자들은 절대표현주의 이론이 일반 학교음악 교육에 적합한 미학적 관점이라고 믿고 있다. 24)

(5) 통합적 관점과 음악교육

음악은 물리적, 형식적, 심미적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상상하고, 은유하고, 유추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음악을 통하여 상상하고, 은유하고, 유추함으로써 음악의 속성들과 인간적 현상을 융합하여 느끼고, 사고하고, 공유하는 행위인 것이다.

● 물리적 속성

음악의 물리적 속성은 소리를 내는 물체의 종류와 재질, 물체진동의 폭, 진동의 강도,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이, 소리의 길이 등 음악을 이루는 일차적인 물리적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물리적 음향을 듣는다는 것은 음향을 음악적으로 듣는다는 것과는 같지 않다. 음악의 체험은 음향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동의 음향적 질을 판별하는 청각각(聽感覺)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적인 상을 이룰 때 진정한 체험이 이루어진다. 즉, 음악의 물리적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융합됨으로써 그 자체 이상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 형식적 속성

음악의 형식적 속성은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짜임의 형태들을 포함한다. 이들 구성요소와 짜임의 형태는 매우 단순한 세부개념들로부터 매우 복잡한 개념들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이 개념들은 1960년대 중반이래 음악교육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다. 특히 미국 음악교육자협회에서는 음악의 형식적 속성을 여러 개념으로 분류하여 학교에서 학습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모델을 제공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요소와 형식의 이해를 증진하도록 촉구하였다.

24) 이홍수, 전게서, P60-62

● 심미적 속성

음악의 심미적 속성은 사람의 인식 속에서 물리적 속성과 형식적 속성이 결합되고, 공간적 음향 현상과 시간적 음향현상이 통합될 때 생기는 포괄적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악곡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나 형식적인 속성은 첫 만남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심미적인 속성은 악곡을 반복해 접하면서 탐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낸다.

Tait와 Haack는 ‘음악을 한다는 것은 음을 통한 심상(imagery)의 구축이며, 은유적인(metaphorical)체험이며, 유추(analogy)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J. Siegel은, 인간의 감지(Perception)는 음향의 자극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수용자 자신의 경험과 예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음악과의 만남이 음악적 속성의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현상에 대한 내면적 인식과 융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음악적 체험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²⁵⁾



3. 청소년기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Erikson은 정체감 대 역할혼미의 중심적 갈등으로 통합되는 단일적 단계로서 약 11세부터 21세까지의 시기를 청년기로 간주하였다.

청년기는 유전에 의해 통제되는 일련의 신체발달에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키, 몸무게, 근육 그리고 신체비율에서의 변화가 현저한 성장급등 현상이 나타나며 동시에 성적성숙이 촉진된다. 난소와 고환의 성장으로 시작

25) 이홍수, 전계서, P62-64

되는 사춘기(puberty)동안 생식기의 성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며 2차 성징(체모, 변성, 유방)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성장급등 현상은 2.5-3년 정도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소녀들의 성장은 소년보다 2년 정도 더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녀들은 10-11세에 성장촉진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소년들은 12-13세까지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성장급등의 성장비율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정도 빨라진다. 아동기 동안 남녀의 신장은 매년 평균 5Cm정도 성장하였으나, 성장 급등기 동안 매년 남자는 10Cm, 여자는 8Cm정도 성장한다.

체중 증가도 현저하게 일어난다. 소년은 평균 20Kg, 소녀는 15Kg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사춘기 말기에 이르면 신체 크기에서의 성차(性差)는 보다 분명해지며 소년은 소녀보다 키는 평균 15Cm정도 더 크고 몸무게는 평균 5-7Kg정도 더 무거워진다.

신체 성장의 성차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소녀들은 사춘기 동안 계속적으로 신체의 지방질이 증가되기 때문에 둥근 외모를 갖게 되는 반면, 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체지방을 잃게 되기 때문에 보다 모난 외모를 지니게 된다. 또한 소년은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androgen)의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깨뼈가 커지고 어깨가 넓어지며 소녀들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estrogen)의 증가로 인해 골반부위가 넓어진다.

청소년기의 성장급등 현상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두개골은 보다 어른다운 모습을 갖게 되며 아래턱과 코가 길어진다. 팔과 다리에 비해 손과 발이 더 크게 보이며 다리가 몸통보다 더 긴, 일시적 신체 불균형 현상을 나타낸다.²⁶⁾

26) 김태련, 장희숙 “발달심리학” 현대문화사 1989 P239-242

2) 정서적 특징

청소년기의 아동들은 강하고 변화가 심한 정서를 경험한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자랑스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사랑과 증오의 극단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다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그들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는 정서에는 수치심, 당혹감, 죄책감, 수줍음, 우울, 그리고 노여움이 있다.

청소년의 극단적 정서변화는 한때 성선(性腺)의 변화나 내분비선의 변화 혹은 신체적 변화에 기인된다고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의 복잡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들어오면 넓어지는 교우관계, 이성문제, 그리고 진로문제 등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적응문제에 당면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서는 극단적이며 과격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자신의 정서변화에 대한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청소년 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청소년 백서(1986)에 의하면, ‘친구들이 나를 홍보거나 놀리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는 설문에 대해 ‘그렇다’는 충동성향을 지닌 청소년은 79%가 되고 ‘그렇지 않다’는 인내성을 지닌 청소년은 21%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한 정서를 ‘이상한 행동’이나 정신이상자의 통제할 수 없는 행동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대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정서표현을 과도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부적응 행동의 발달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²⁷⁾

27)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현대문화사 1989 P201

3)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으로 본 음악적 성장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일이다. 학교 교육은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음악교육 역시, 계획된 의도 아래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 일이다.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이론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소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공통된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는 것과, 개개인의 성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²⁸⁾

Piaget는 인간의 지능은 개인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지 발달이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발달을 의미하며 그것은 동화와 조절의 메카니즘에 의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정상적인 성장은 동화와 조절 사이에서 빚어진 긴장의 해소과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긴장이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과거의 반응양식과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반응양식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의미한다. 지적인 성장은 아동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적응상태를 평형이라고 한다.

Piaget는 지능의 발달은 서로 질적으로 다른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Piaget의 발달단계는 인지구조의 질적 차이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28)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1) 감각 운동기(Sensorimotor stage)

출생 순간부터 약 18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영아는 자신의 감각기관과 운동행동 사이의 관계를 발견한다. 처음에는 자신과 환경의 대상에 대한 의식이 없지만 조금 성장하게 되면 대상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물체를 잡고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며 소리와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최초의 반사행동을 바탕으로 도식을 형성하며, 형성된 도식에 의해서 환경을 조직하고 보다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감각작용이 감각 운동기의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체적 기능이라는 사실은 음악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운동신경, 근(筋)감각 등과 함께 아기의 청각도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각이란, 여러 가지 음(音)현상의 특징을 분별하는 청각적 내면작용을 뜻한다.

영아의 음악적 체험은 흔히 부모의 품안에서 음악적인 느낌에 간접적으로 반응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아기가 부모와 함께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소리를 흉내내어 보고, 간단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의 놀이를 통해 음악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적 감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2) 전(前)조작기(Preoperational stage)

생후 18개월부터 약 5세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전 조작기는 조작기로 발달해 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로서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나 아직까지 개념적 조작능력은 발달하지 못했다.

전 조작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비언어적인 성장행동의 출현이다. 정신세계의 급진적인 확장에 의해 논리성이 결여되며 모방, 상상, 상징놀이 그리고 상징화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행동을 표상 한다. 전 조작기 아동의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아직까지 그들 자신의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단히 자기중심적이다. 전 조작기 동안에는 인지 발달과 함께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도 급속히 성장한다. 교사와 부모가 이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음악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그들은 소리의 셈여림, 음높이, 음길이 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율동 및 가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들려 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 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음악적 능력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청각과 반응력이 뚜렷이 발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3)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구체적 조작기는 약 6-7세에 시작하여 청년기 초기 즉 11-12세에 끝난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보존개념을 획득하고 논리적 조작이 가능하며 사물들 사이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시기의 아동들은 구체적 사물과 관련되어있는 문제해결에서는 대단히 유능하나, 순수하게 철학적 혹은 추상적 개념에 관한 가설생성에는 아직 미숙하다.

구체적 조작기 동안에 어린이들은 인지적으로 뚜렷한 발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 면에서도 폭 넓게 성숙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볼 때, 음악적 현상의 보존이 가능하게 되며, 음악적 개념도 현저하게 계발된다.

구체적 조작기의 초기 단계인 7세경의 발달특징을 보면, 음악의 셈여림과 음색, 빠르기를 구별할 수 있고, 리듬에 흥미를 가지며, 화음을 지각하기 시작하고, 창조적인 상상력이 왕성해진다.

8-9세는 음악적 능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각각(聽感覺)이 일생 중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각기능이 음(音)현상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한다.

10-11세 경이 되면 어린이들은 집단소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음악적으로는 화음 감지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중창 및 중주활동, 합창 및 합주 등의 활동이 권장되며,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적, 음악적 충

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4)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12세 이후부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발달단계를 Piaget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명명하였다.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서 순전히 상징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료를 조직하여 과학적으로 추리하며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형식적 조작능력은 조합적 사고인데 그것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다.²⁹⁾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신체적, 지적, 감정적 측면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가지는 유기체적 존재로 성숙한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 개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음악적 특수성과 지적수준 등이 음악지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측면이 된다. 청소년들은 개인별로 음악적 욕구와 필요를 지니며, 때로는 음악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들은 또한 음악으로부터 감성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지적인 충족감도 동시에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음향과 음악적 논리의 관련성, 음향과 추상성, 음악의 창조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예술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⁰⁾

29)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전영사 1987 P15-18

30)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 출판사 1990 P77-80

3. 음악 교육의 당위성

1) 음악 교육의 목적

학교 음악교육은 일반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음악의 체계를 통하여 음악성과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갖도록 인간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급 학교의 음악 교육은 보통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육이어야 하며, 이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음악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음악교육은 어떤 특정한 음악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즐기고 이해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며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예술교육의 일부이며 보통교육에 있어서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결코 전문적인 음악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며, 넓고 깊은 음악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하겠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며, 또한 음악미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즉 음악미의 이해·감득을 제 일차적인 것으로 하고 이것을 통하여, 높은 미적 정서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³¹⁾

학교 음악교육에서 음악교과는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음악교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31) 교육과학사 편, “교육학 대사전” 서울:교육과학사 1972 P757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며, 더불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덕성의 함양’에 귀일(歸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음악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도구로써 쓰여서는 안되며, 음악은 음악 그 자체 즉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독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음악의 자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악의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의 체험 없이 아름다운 정서의 함양이나 원만한 인격의 연마는 물론, 나아가서 애국애족 한다든가 문화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그치가 쉬운 것이다.³²⁾



2) 음악교육의 당위성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학문중심의 교육사조가 형성되고,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몇몇 지적 교과들이 강조되고 있을 때, 음악교육자들은 음악교육이 더욱 침체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심미적 가능성 계발을 위한 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삶과 개인의 성장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음악 교육자들은 음악활동의 명백한 가치를 제시하고, 심미교육의 일부로서 음악교육의 고유한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음악교육의 위치를, 위축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삶의 본질, 음악예술의 심미적 가

32) 박찬석 “음악교육총론” 태림출판사 1977 P30-31

치 및 그 본질에 근거한 확신이였다.³³⁾

음악을 왜 교과목 중 하나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당위성에 관한 의문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음악 교육자들에게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근원을 살펴볼 때, 음악교육에 대하여 그 기록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법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여 왔는데, 이와 같이 음악교육이 여러 측면에서 변천을 거듭해온 근본적인 까닭은 음악교과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음악 교육자들의 사고를 지배해 온 음악교육의 가치는 음악의 본질과 개인적 삶의 질과의 관련성보다는 음악과 삶의 사회적 요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폭 넓게 지지 받아온 전형적인 주장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시민의식의 계발을 돕는다.
 - 건전한 행동양식을 육성한다.
 - 협동심을 기른다.
 - 사회성을 기른다.
 - 여가선용을 돕는다.
 - 원만한 인격형성을 돕는다.
 - 건강을 증진한다.
 - 건전한 작업습관을 기른다.
 - 애국애족의 마음을 기른다.
 - 가정생활의 개선을 돕는다.³⁴⁾

3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 출판사 1990 P100-101

34) 이홍수, 전게서, P96-97

음악교육은 인격형성과 이와 관련된 문화의 전승, 인간의 창의력 계발을 촉진하는 전인교육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가르침을 주거나 받는 개개인과 그들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변화를 예시한다.³⁵⁾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영혼 속에 음악을 지닌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플라톤에 의하면 교육이란, 학생의 영혼에 내재하고 있는 이성(理性)을 고양하고 합리적인 능력의 각성을 통해 영혼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돕는 것이다.³⁶⁾ 아울러 음악교육은 조화로운 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절제를 배우게 하며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함으로서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감각은 성인기의 사회적 능률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조기교육, 그 중에서도 음악이 인간심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음악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할 것은 음악이 지니고 있는 위대하고도 영구적인 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플라톤은 인격교육의 주요 수단으로 음악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전후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음악을 정신계발을 위한 과목이자 인간교육의 한 수단으로 아동기와 청년기를 통해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음악교육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사춘기 이후의 음악교육은 비이성적(非理性的)이고 욕구적인 부분의 교육으로 영혼의 성격과 특질에 영향을 주며, 정확하고 고상한 것을 즐기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사춘기에 주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이때 음악의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은 사춘기 교육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습관화를 통해 학습되어진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교육목적인 도덕적 탁월성을 위한 준비인 셈이다. 바

35) 최영자 “한말 개화기의 음악교육” 음악춘추사 1999 P11

36) 성기산 “서양음악사 연구” 서울 문음사 1993 P166

꾸어 말하면 음악은 전인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주요 교과목의 하나로서 인간의 문화변천과 그 틀을 같이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음악교육은 예술교육의 일부분이다. 예술교육은 자연을 대상으로 창조적, 직관적으로 미적 이념을 습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해 심미적 취미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교육의 기초학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술의 일부분으로서 음악교육은 음악미의 이해와 감득을 통해서 높은 미적정조(美的情操)와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교육인 것이다.³⁸⁾

이러한 음악교육의 기능은 다양하다. 협동심, 전통문화 계승, 애국애족의 정신과 창의성 함양 그리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하는 것 등이 모두가 음악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3) 음악치료로 본 음악교육



음악치료는 음악과 치료가 복합된 개념이다. 음악이 변화의 매개물로서, 치료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 주고 인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며 자아실현을 도와 줄 때, 그 과정이 바로 음악치료가 된다. 넓게 정의하자면, 음악치료는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정신적·생리적인 건강을 회복·유지·증진토록 하고 행동적·발달적·신체적·사회적 기술을 습득·재활·유지하기 위해 치료적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치료와 같이 비언어적인 치료양식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없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과 증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단에 도움을 주고 다른 치료양식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⁴⁰⁾

37) 최영자, “한말 개화기의 음악교육” 음악춘추사 1999 P13-14

38) 최영자 “한말 개화기의 음악교육” 음악춘추사 1999 P203

39) 양종모 “학교음악교육의 사회 관련성 제고”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40) 에디스 힐먼 박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이화여대 출판부 1999 P7-9

그 중 학습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는, 지능 측정에서 나타난 능력의 정도와 한두 개 이상의 학습 분야에서 나타난 상태가 크게 불일치 하는 경우이거나, 독해 등 학업상 학습장애의 경우, 집중장애 및 행동과다를 보이는 경우 등의 장애요인으로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인들에게 치료로서 적용되어 문제점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펠러(Gfeller,1984)에 의하면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학습장애인들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음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 행동 조절을 돕기 위해
- 학습 과제 수행에 대한 보상이나 강화재로서
- 어떤 특정한 학습 개념이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로서
- 사회적, 정서적인 성장과 계발을 시도하기 위해⁴¹⁾

또한, 치료적 매개물로서 사용되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음악은 범 문화적인 표현양식이다.
- 음악에는 비언어적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보편적인 수단이 된다.
- 음악은 일종의 소리자극으로서 개인의 상태나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음악은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과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생리적·정신적 반응을 유발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 음악이 본래 갖고 있는 구조와 성질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를 구조화하도록 돕고 집단의 구조화도 가능케 한다.
- 음악은 음악적·비음악적인 행동에 영향을 준다.
- 음악은 학습과 기술의 습득을 촉진한다.
- 음악은 모든 환자집단에 적용 가능한 기능적·적응적·심미적 양식이다.

41) 최병철 저 “음악치료학” 학지사 2002 P294-295

음악이 지체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음악은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런 인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수단 중 하나이며, 관계형성에서도 비언어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에 강력한 치료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치료양식은 발달 장애인 자신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또 그들에 대한 사회와 전문가의 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적절한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음악치료는 정상화·사회화·인간화를 위한 작업이다. 즉, 삶을 위한 것이다.⁴²⁾

5. 우리나라의 학교 음악교육

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음악교육

(1) 제 1차 교육과정 (1955-1963)

제 1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념상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교과를 조직함에 있어서는 생활중심의 단원 학습배열, 학습의 생활화 효과를 노린 점, 생활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해, 기능, 태도의 육성에 힘쓴 점, 흥미 중심의 작업 단원의 설정 등 아동 중심적 이상을 반영하려 하였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의 체험을 통해 정서와 인격을 갖추어 가정인, 사회인, 국제인으로서의 교양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이 일반 목표에 따라 기능연마(가창과 기악), 감상, 창작 및 음악의 생활화 등과 관련하여 음악과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년별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음악의 생활화 등 다섯 가지 영역의 지도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지도

42) 에디스 힐먼 박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이화여대 출판부 1999 P29

내용을 살펴보면, 음악과의 지도가 당시의 선진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던 학교음악의 내용과 방법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와 서양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이 만든 악곡과 이론을 배우고 그 방법을 익혀서 음악을 생활화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 2차 교육과정(1963-1973)

제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상 생활중심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규정된다. 이는 교육과정을 교수 요목이나 지식의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여긴다는 뜻이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의 사조와 관련하여 볼 때, 사회교육 중심의 특색을 가진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듀이(J.Dewey 1859-1952)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교육이론이 우리 교육과정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반목표에 따라, 각 학년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별 목표를 밝히고, 다시 학년별, 영역별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음악활동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각 영역을 음악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주적으로 경험하도록 강조하였으며, 제 1차 교육과정의 '음악의 생활화'와 '기초이론'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그것이 독자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음악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3)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

제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 일컬어진다. 학문중심 교육사조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각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탐구 과정의 조직으로 정의된다. 즉 교육 과정은 각 교과에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구조)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

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학문중심’의 그러한 세계적인 교육사조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음악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제 3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적 교양, 기초적 능력, 표현 및 감상능력,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및 태도 등 네 가지 일반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음악적 감각과 기본기능, 가창 표현력, 창의적 표현력, 감상능력 및 태도 등 다섯 항의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고 네 가지 활동 영역별로 교재곡의 범주와 활동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음악성’, ‘창조성’, ‘음악요소’ 등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음악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한 개인으로서 음악과의 가치 있는 관계를 수립하게 하는데 유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관계는 학습자가 음악 요소와 그들의 역할 및 음악행위의 원리를 감지하고 이해하며 다룰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음악교육자들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4) 제 4차 교육과정(1981-1987)

제 4차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경험중심, 학문중심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간주된다. 시대에 따라 단일사조의 영향을 받아온 종래의 접근과는 달리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도록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교과서는 기본개념 또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은 학생의 경험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음악체험-음악성-정서-창조성-조화로운 인격을 그 목표로 제시하고, 음악적 감각의 향상, 독보능력 및 창조적인 표현

능력의 배양, 참여태도, 음악 문화적 배경의 이해, 음악 애호심 함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 4차 교육과정의, 그 정신에 있어 세계의 음악교육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개념적 접근방법과 학생중심의 경험학습, 창의적 음악활동을 수용함으로써 음악자체에 대한 심미적 체험을 학습의 핵심(核心)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의 결과라고 해석 될 수 있다.

(5) 제 5차 교육과정(1987-1992)

제 5차 교육과정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 민주화의 정착화, 정보화시대의 도래, 국제경쟁 및 교류의 증대 등 교육 주변상황의 변화로 인한 교육 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 4차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및 방법, 그 실천운영 등에서 오는 불합리성과 문제점, 여건 등으로 인한 교육 내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적,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 4차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목표와 내용구성상의 변화이다. 즉, 교과목표는 제 4차의 그것과 동일하며, 기본능력, 표현능력, 감상능력의 세 항목의 소 목표와 내용이, 표현(음악적 감각 및 표현능력)과 감상(음악 이해 및 태도)의 항목으로 조정되었고, 제 4차의 기본능력 항목의 요소별 내용이 표현 및 감상 항목에 각각 삽입 조정된 것이었다.

이것은 개정된 새 교육과정이 제 4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체제구성에 있어서 간결성의 묘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⁴³⁾

43) 이홍수, 전게서, P207-211

(6) 제 6차 교육과정(1992-1999)

제 6차 교육과정은 시대적·학문적·개인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교육부 고시 제 1992-15, 1992-11, 1992-19호로 1992년 제정 공포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 6차 교육과정은 ①건강한 사람(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 ②자주적인 사람(개성이 있고 자율적인 사람) ③창의적인 사람(창의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④ 도덕적인 사람(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편성·운영체계의 개선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교육과정을 명백히 구별하고,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편성체계를 강조하였다.⁴⁴⁾

제 6차 교육과정의 중심철학은 학문중심의 심화발전에 있다.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행된, 제 6차 교육과정은 지도내용을 이해, 표현, 감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는 음악의 구조적 개념과 음악 생성원리의 이해를 뜻하며, ‘표현’활동과 ‘감상’을 통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표현’의 본질이 예술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⁴⁵⁾

(7) 제7차 교육과정(1999-)

제 7차 교육과정은 최근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이 교육적 수월성을 추진하

44) 김인식, 정찬기오, 권요한 “교육과정및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1996

45) 차윤선 “한·일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1999 P17-19

기 위해서 음악과 내용, 성취기준, 평가방식을 과감히 개혁하고,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 세계적 추세, 교육적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여 새 시대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구성방침과 음악교육에 대한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교육과정
- 나. 우리 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
- 다. 활동중심의 음악교육
- 라.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교육
- 마. 타당성 있는 음악과평가
- 바. ‘학생 선택 중심교육’ 과정과 ‘음악과 생활’의 신설⁴⁶⁾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지도중점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음악과 교육의 목적

음악과교육은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② 음악과 교육의 특성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

46)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1997-15호 P11-13

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

③ 고등학교에서의 음악과의 지도중점

고등학교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또,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분석하며, 생활 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⁴⁷⁾

2)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 대계요, 인재를 키우는 것 즉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지식교육은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업의 대부분이 틀에 박힌 수업에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다.

하지만 교육은, 특히 음악교육은 지식습득이 목적이 되면 그 가치와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다. 음악교육은 순수한 예술교육이며 음악은 예술이므로 그 자체가 목적일 뿐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⁴⁸⁾

4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고시 1997-15 P17

48) 하경화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개선점”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희 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P4

음악의 예술로서 성격과 교육상의 역할, 그리고 음악교육의 이상을 분명하고 신중하게 필요한 것으로 믿으면서도 우리는 현실에 있어 서글픈 일을 감출 수가 없다. 그것은 겉으로는 교육개혁의 운동이 있었으나, 학교교육은 의연하게 교과 중심적 입시위주로 예술교육은 부가적 지위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교육법 제 94조 6항에는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명랑하고 화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갖게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명랑하고 화락한 인간”이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결격 사유가 없는 조화로운 인격과 균형감 있는 지적능력을 갖춘 인간을 말하고 이것은 곧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에 따르는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의 무대는 현재의 사회가 아니고 다가올 미래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사회가 크게 차이가 없던 때에는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지식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기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 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내용·방법을 적용하고, 개별지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상급학교 입시가 최대목표인 것처럼 인식되어 학교는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는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략하여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주입식 암기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 가치와 의미 있는 경험으로부터 학생들을 격리시

49) 정세문 한국의 교육 제 6집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63 P78

킨 채, 미래의 가치로운 삶의 창조와는 무관한 편견된 지식들을 주입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교육은 결과적으로 도덕적 품성이라든지 심미적 성향과 같은 인간성 함양을 소홀히 하게되어, 교육의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는 전인교육은 물론 창의력, 비판력, 사고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의 신장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게 된다.⁵⁰⁾

(2) 개선방안

21세기 지구 인류의 주역은 역시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전쟁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문화전사인 청소년들의 음악교육에 많은 연구와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의 중심은 예술이며 예술의 선도주자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리전쟁시대에도, 경제전쟁시대에도 이미 뼈아픈 시련을 겪어왔다. 이제 당면해 있는 문화전쟁시대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탄탄히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전사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이고 그들의 음악은 매우 중요하다. 음악은 인간의 지능발달, 신체발달, 그리고 심미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 영상매체를 통하여 빠르고 강렬한 리듬의 대중음악에 깊이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이는 정서순화에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가 부드럽게 형성되지 못하면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든 문화가 흔들리게 된다. 지금의 청소년 음악을 건전한 쪽으로 유도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¹⁾

우리 음악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케 하는데

50) 백현기 “한국교육의 미래와 도전” 학지사 1998 P355, 358

51) 장홍용 “한·미 청소년 음악단체의 실태 비교” 1988

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음악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
내야 할 것인지도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① 입시위주교육에서 벗어난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가 인간자격 내지는 성패의 관문이 되어 있고 학교
는 ‘입시인간’이라는 상품의 생산 장소이며, 입시와 공부는 청소년들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지배한다.⁵²⁾

이러한 교육현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게 할뿐더러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아개념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출판된 교과서
를 통해 아동기 초기 자아개념 형성을 연구한 드래퍼 등은 각 교과서 저자
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 자신이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믿으며,
저자의 약 70%는 음악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를 자기 표현의 기회와 창
조적이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한다. 이와 같이 음악적 자아개념
과 음악적 활동은 아동·학생들의 인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능적 인간을 강조함에 따라 음악교과
는 이른바 인지영역을 중요시하는 교과에 밀려 소홀히 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우려되는 현대사회에서 미적정조(美的
情操)와 풍부한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의적 영역개발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서 음악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⁵³⁾

② 평생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정책 입안

대체로 평생교육을 학교교육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학
교교육의 상위개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지속적인 학습을 말한다. 이
개념은 형식교육뿐 아니라 비형식 교육을 포함하며, 교육의 대상도 학령에

52) 이현청 “교육사회학” 서울 양서원 1995 P328

53) 최영자 “한말 개화기의 음악교육” 음악춘추사 1999 P204-205

도달하지 않은 유아와 성인교육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악은 윤리와 도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악이라고 하였다. 플라톤도 음악은 인간의 성품, 인격, 지식을 형성시키는 것이라 하여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음악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되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음악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질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르쳐져야 하며, 음악은 특수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음악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⁵⁴⁾

음악의 교육적 가치라 함은 보통의 인간을 훌륭하게 양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입신 출세주의에 근거한 지식 편중 교육에서 탈피하고, 인격완성의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목표 아래 과거 가창 위주의 편견된 음악의 부분학습에서 탈피해 음악의 종합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전인격의 함양에 집약되는 새로운 방법에 의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을 실시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⁵⁵⁾

54) 최영자, 전계서, P206-207

55) 박찬석 “음악교육총론” 태림출판사 1977 P39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음악교육의 역사적,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정상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일이며, 학교교육은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성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음악교육은 음악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인간정신을 순화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목표로 하는 인간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음악교육 역시 계획된 의도 아래 적절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음악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 일이며,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근원을 살펴보면, 그 기록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방법이 여러 모습으로 변하여 왔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또한 어떠한 이론적 관점에서든 역시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의 중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교육은,

첫째,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와, 건전한 행동양식을 육성한다.

둘째, 인간생활에 온정을 가져오게 하고, 협동성·사회성을 기른다.

셋째, 창조적인 태도를 길러, 주관적이며 개성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을 준다.

넷째, 음악치료학 부분에서도 그 가치를 나타내어,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을 통한 치료의 매개물로서 공헌한다.

다섯째, 여가를 유효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능력을 길러, 가정생활의 개선을 돕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악은 예술로서의 성격과 교육상의 역할,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현실에서의 음악은 어떠한가.

음악교육은 인간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상급학교로의 진학만을 위주로 한, 지식습득을 그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의 교과목만을 중심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학생들을 몰아가고 있다. 음악교육 역시,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인성교육·정서교육을 무시한 입시위주 학교교육의 결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입시교육에 밀려나 있는 음악교육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음악은 정서적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러한 음악을(여기에서는 순수음악을 일컫는다.)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받지 못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입시 스트레스에 쌓여 비행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별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 등에 관계없는 학교교육의 몰 개성화 역시 그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21 세기의 주인공은 우리 청소년들이다.

정서교육을 무시한 학교교육으로 말미암아 극대화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와 잘못된 경쟁심리는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 즉 정상적인 음악교육을 바탕으로 서서히 그 궤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칭 일류학교만이 인생성패의 관문이라는 잘못된 사회정서를 버려야하며, 그러한 잘못된 사회정서에 맞추어 일류학교 진학을 위한 '상품'만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잘못된 학교 역시 교육의 중심을 인성교육에 두어 학교 음악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비로소 학교는 제 역할을 다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1990)
- 김경식, 『교육사·철학신문』, (교육과학사, 1999)
- 정세문,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동아출판사, 1983)
- 신득렬, 『음악교육 5월호』, (서울, 세광문화사, 1988)
-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 1997-5호(별책12)』,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 류덕희, 『음악교육학개론』, (대구, 학문사, 1975)
- 이용일,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현대악보 출판사, 1982)
- 최영자, 『한말 개화기의 음악교육』, (음악춘추사, 1999)
- 김인식, 정찬기오, 권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1996)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고시 1997-15호
- 김태련, 장휘숙, 『발달심리학』, (전영사, 1987)
- 최종진, 『음악과 교육론』, (서울, 선일문화사, 1984)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제 5차 초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1986)
- 교육과학사 편,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1972)
- 박찬석, 『음악교육총론』, (태림출판사, 1977)
- 성기산, 『서양음악사 연구』, (서울, 문음사, 1993)
- 에디스 힐먼 박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이화여자 대학교 출
판부, 1998)
- 정세문, 『한국의 교육 제6집』,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1963)
- 백현기, 『한국교육의 미래와 도전』, (학지사, 1998)
- 장홍용, 『한·미 청소년 음악단체의 실태 비교』, (1988)

이현청, 『교육 사회학』, (서울, 양서원, 1995)

최병철,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2002)

<학위 논문>

류혜련(1983), 『음악교육이 전인적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혜근(1982), 『음악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소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소현(2001),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경성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윤선(1999), 『한·일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종모(1991), 『학교 음악교육의 사회 관련성 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경화(1988),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개선점』, 경희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research on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in an
adolescence**

-focused on music education in school

Kang, Hea-Suk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 Hong-Yong



Music is an art which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musical notes. As an activity of aesthetic creation exclusive to humans, art makes mankind more humane and noble. It is well known that among several fields of art, music affects people's emotions the strongest by acting directly on those emotions.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noble human activities which helps to guid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so that they can lead quality lives.

Accordingly, music education is humanistic education through which people can appreciate profound musical beauty, foster an ability to express that beauty through music, cultivate character and purify th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human spirit.

Music education in school is aimed at developing students' potential and creativity, allowing them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hrough musical activities and helping them understand, love, and enjoy music in a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 Ultimately, its goal is to make students whole persons by raising their quality of life.

In this paper, we studied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by reviewing prior papers and music related publications. We examined the following musical theoretical aspects.

First, we examined the history of music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then analysed music education during modern times in Korea.

Secondly, we explo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music education from the philosophical and aesthetic points of view.

Thirdly, we verified the importance and purpose of music education and explored the functions of music from a therapeutic aspect.

Furthermore, in this paper, we focused our research on music education in school rather than in society. We discovered some problems with music education and offered solutions.

Music education in school is an activity that helps students enjoy music and grow in a positive manner by providing them with proper experiences and conditions under a proper program.

Music education should develop students' musical potential and creativity, helping them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nd become whole persons by leading high quality lives.

Even though we know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in school as a tool for humanist and art education, college-admission-centered

education has driven the education system into focusing on a few specific subjects which are believed to be essential for entering college. Consequently, music education has been undervalued.

The social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may result from college-admission-centered education system under which humanism and emotional sentiment have been disregarded.

It is the younger generation who will lead the 21 century.

The current school education system which ignores humanism and emotional sentiment has led students into selfishness and extreme competition, which can be corrected by sound musical experiences and proper music education in school.

It is time for us to eradicate the idea that one's future depends solely on entering a prestigious university.

We should try to transform high schools from "factories" producing "commodities" for entering college into places for cultivating human nature.

By doing so, school can play its own role in educating students.



감사의 글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덜 채워진 듯한 느낌에 다시금 학교로 발걸음을 내딛은 지 2년 반.

어느새 학위논문을 탈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치도 않았던 대학원 진학에,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무엇보다 소중한 거라 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부모님.

아직 공부중인 언니를 대신해, 만발 역할 톡톡히 하고 있는 착한 우리 정선이.

유학 중 자기 공부하기에도 벅차면서, 메일로 전화로 늘 언니의 논문을 걱정해 주고, 격려해 주던 이쁜 우리 정숙이.

방학하고 내려오자마자 편집에, 이것저것 귀찮게 해도 기꺼이 기분 좋게 척척 해 내던 믿음직한 우리 막내 동혁이.

바쁘신 시간, 죄송스러우리만큼 많이 할애 하시어 꼼꼼히 이것저것 짚어주신 장홍용 교수님, 부족한 논문에 좋은 말씀 아끼지 않으셨던 김인규 교수님, 황희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난히 예민한 성격, 군말없이 모두 받아주고 늘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내 친구.

변함없이 늘 가까이에서 조언해 주고, 기쁜일에 같이 웃고, 슬픈일에 같이 울어주는 내 든든한 친구들.

쑥쓰러워 말로는 못하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게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내 가족, 내 친구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그 고마움 전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실수 투성이 사회 초년생인 저를 따뜻함 가득한 눈으로 보아주신 우리 교수님들.

선배로서, 동료로서 많은 조언, 많은 도움 아끼지 않았던 오기봉 조교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후배들.

다시금 뼈속깊이 그 감사함 느끼며, 부족함 가득한 논문이지만 오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놓아 봅니다.

2002년 8월

강 혜 숙